

SFC와 KTS가 함께하는
MZ세대를 위한 종교개혁기념주간 특별강좌

밀레니얼-Z세대

기독교청년의 행복로드



김성수교수 권수경교수 김재윤교수 이성호교수

고려신학대학원과 학생신앙운동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주춤하는 MZ세대 기독교청년과 함께
종교개혁의 호흡으로 걸읍시다!

주최 ■ 고려신학대학원(KTS) & 학생신앙운동 대학사역부(SFC)

강좌안내

SFC와 KTS가 함께하는
MZ세대를 위한 종교개혁기념주간 특별강좌

밀레니얼-Z세대

기독교청년의 행복로드

Section 1

녹화 강좌 1(10월 19일)
**잠언으로 배우는
MZ세대의
경제생활**



김성수 교수(구약학)

녹화 강좌 2(10월 21일)
**다시 기초부터!
포스트모던 시대
MZ세대 기독교청년의 과제**



권수경 교수(기독교윤리학)

- ① 'Section1'의 강좌는 사전에 녹화되며, 10월 19일(화)과 21일(목)에 고려신학대학원과 학생신앙운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의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② SFC 및 교회 청년대학부에서는 강의영상을 종교개혁 기념주간 전후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 ③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돕기 위한 '강의요약과 질문'을 담은 자료(PDF파일)를 제공합니다.

Section 2

실시간 강좌 1(10월 26일 / 오후7-8시)
**이신칭의
루터가 지금
대학에 다닌다면**



김재운 교수(교의학)

실시간 강좌 2(10월 28일 / 오후7-8시)
**개혁주의 교회건설
MZ세대가 세워야 할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이성호 교수(역사신학)

- ① 'Section2'의 강좌는 유튜브로 실시간 진행되며, 10월 26일(화)과 28일(목)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각각 다른 강좌가 진행됩니다.
- ② 당일 강좌 링크주소는 고려신학대학원과 학생신앙운동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
- ③ 유튜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채팅창을 통해 질의를 받습니다.
- ④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돕기 위한 '강의요약과 질문'을 담은 자료(PDF파일)를 제공합니다.

주최

고려신학대학원(KTS)
학생신앙운동 대학사역부(SFC)

*녹화 강좌 및 실시간 강좌는 당일에는 고려신학대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생신앙운동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잠언으로 배우는 MZ세대의 경제생활

김성수 교수_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하면 많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기 쉽다. 잠언 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14:20; 18:23; 19:4도 참조).

10: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यो/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9:7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2021년 서울시는 MZ세대(1980~2004년생, 2020년 기준: 16~40세)의 특징과 경제활동,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¹⁾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MZ세대는 더 좋은 직장 이 나오면 언제라도 옮기고 싶어 하지만, 수입을 위해 일을 더 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후 노후 생활 준비율은 2015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한다. 또 한 대학 신문에서는 “주식과 코인에 빠진 대학생들”이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취직이 어렵고,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며 “대학생은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거의 없으니 투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대학생들의 주식과 코인 투자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²⁾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깨끗한 방법으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돈을 잘 사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돈은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난당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위의 양극단의 어느 지점에 머문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균형 있고 종합적인 원리를 잠언에서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잠언에는 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안내하는 교훈들이 등장한다.

1)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0668> (2021년 8월 10일 업로드, 10월 1일 접속).

2) 「고대신문」,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8> (2021년 5월 23일자 기사, 10월 1일 접속)

잠언에 제시하는 경제관이나 경제생활에 대한 원리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잠언은 재물이 보통은 여호와 경외에 기초한 지혜롭고 의로운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급 이기에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라고 한다. 반대로 게으르고 방탕하고 불의한 삶의 결과로 초래된 가난은 피하라고 교훈한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 자체가 지혜와 정의의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각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한다. 특별히 많은 잠언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여 소득을 얻는 일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것은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일하지 않고 소득을 챙기려고 하는 자세에 대한 경고를 동반한다. 이런 원리적인 충고는 소위 ‘투자’를 통해 단번에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준다. 그러면서도 ‘투자’가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도 안겨준다.

둘째, 잠언은 경제적인 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숭배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한다.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사랑 넘치는 관계, 좋은 평판, 만족한 삶을 더 추구하라고 한다. 돈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삶을 바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침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이다. 이런 교훈이 반복되는 이유는 돈이 그만큼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거리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경제생활 내내 명심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시금석이 된다.

셋째, 잠언은 이웃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등 불의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악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라고 한다.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단지 게으름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대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불의와 악의 문제를 동반한다.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인간성과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는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잠언은 돈을 버는 방법도 선해야 하고 돈을 쓰는 일도 선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돈을 잘 사용하라고 교훈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까지 한다.

이상의 원리들은 청부론과 청빈론 모두 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취직, 사업, 투자, 저축 등을 통해, 하나님이 금하시는 불의하고 게으른 방법이 아닌 의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의롭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세계를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는 늘 가난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는 일을 위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다시 기초부터!

_포스트모던 시대 MZ세대 기독교청년의 과제

권수경 교수_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인쇄술의 발달

내 어린 시절은 교회 내 인쇄술의 발달을 눈으로 확인한 기간이다. 등사라는 다소 원시적인 인쇄 방식이 마스터 인쇄라는 세련된 기술로 발전했고 곧이어 원판을 거의 그대로 재생산하는 복사 기술도 나왔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글이든 그림이든 개인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찍어내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3차원 인쇄라는 것도 있다.

그 전에는 많이 느렸다. 글을 찍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불과 이천 년 전이고 목판 인쇄라는 형식을 갖춘 것도 겨우 천 수백 년이다. 우리 겨레의 자랑 금속활자가 등장한 지는 약 800년.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발전이라는 게 없었다. 활판 인쇄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책을 찍어내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그런 변화에 비한다면 내가 자라며 경험한 변화는 정말 빠른 것이었다.

오늘날은 변화의 시대다. 변화가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변화, 뿌리부터 뒤집는 급진적 변화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히 일어나고 있다.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기술도 빛의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사상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그런 변화와 나란히 달리며 도덕과 세계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신세대와 내일

디지털 문화와 더불어 자란 M세대에 이어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Z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기능을 다 담은 조그만 기기로서 그 폰을 가진 사람은 우주와 소통하는 창을 가져 스스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된다. 이미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태어나 변화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세대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엄청나지만 사실 앞으로의 변화가 더 무섭다. 그 변화 가운데 중심에 선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디지털 및 가상의 영역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앞으로 이 분야는 무한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이라면 무시해도 되지만 문제는 이 가상의 영역이 현실 세계와 점점 결합될 것이고 결국은 현실 세계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보기로 아바타를 통한 대리 인생을 예상할 수 있다. 아바타는 아직 가상의 공간에만 있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은 아바타가 멀지 않은 때에 현실 세계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수의 아바타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인격의 개념, 책임의 문제, 윤리 및 세계관의 혼란 등 지금 으로서는 예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제기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은 이미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에 도전장을 던졌고 지금도 성경 말씀의 진리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메타버스와 현실의 결합이 실현될 경우 디지털 문화에 대한 언급도 없고 때로는 충돌되는 듯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 말씀의 참 가치에 대한 공격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뿌리부터 뒤집는 일이다. 절대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변화로서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대응이 시급하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아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역사에서도 대안을 찾기 어렵다. 한 가지 500년 전의 개혁에서 건질 게 있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루터와 천주교의 태도 차이다. 천주교는 인쇄를 부정적으로 본 반면 루터는 적극 이용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웠다.

앞일을 예측조차 하기 힘든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이 변화를 바라만 보거나 깎아내리지만 말고 과감하게 뛰어들어 배우고, 장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역을 주도하는 일이다. 기성세대의 걱정 어린 조언에 너무 연연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의 변화가 어떤 신학적 함의를 갖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변화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 용기를 내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 다음 세대 곧 여러분이 주역이 될 그 시대를 직접 주도하여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바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루터가 지금 대학에 다닌다면 _이신칭의 교리 해설과 적용

김재운 교수_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1.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약 500년 전 종교개혁가 루터가 21세기 어느 대학 캠퍼스에 살게 된다면 하는 발칙한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1483-1546)는 15세기 말에 태어나서 16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수도사였습니다. 이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 않지만 당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학, 법학, 철학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금의 인문학 기초에 해당되는 것들, 곧 트리피움(Trivium)이라고 불리던 문법, 수사학, 변증학(변증논리) 그리고 콰드리피움(Quadrivium)으로 분류된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을 배운 이후의 일이지는 합니다.

비텐베르크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 곧 루터가 95개조 질의서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걸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대학에서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95개조 질의서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의 신앙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전통이 가르쳐 왔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교황이 보낸 대표단과 카를 5세 앞에서 끝까지 변호했습니다. 이 두 번의 공개적인 변론은 각각 이 변론이 이루어졌던 도시 이름을 따서 라이프찌히 변론(1519년)과 보름스 변론(1521년)이라고 불립니다. 이후에 로마 천주교회에서 출교 당한 채 그는 설교자이자 아웃사이더 신학자로 살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어느 성에 숨어 지냈습니다. 황제들 위해서 군림했던 로마 천주교회는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안전한 곳이 아니면 목숨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

이런 루터의 일생을 지금에 옮겨 놓으면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요? 부정부패한 거대권력에 대항하여 은둔하면서 투쟁하는 정치 혁명가나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어떤 정의로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회운동가에 가까울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세습을 한 어떤 대형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루터가 지금 살아 있다면 어떤 일에 95개조 질의서를 내걸었을까를 상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루터가 가진 정신,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일을 우리도 이 시대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루터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생활하는 대학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루터의 신앙과 삶을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쉽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강에서 루터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지금 현재 대학 캠퍼스 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루터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키려고 했고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이 난해한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 삶 전반에 적용된다면 하는 상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 난무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에 어떤 신앙적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3.

대학에서 우리가 가장 민감해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한 만큼 성적으로 정당하게 받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비록 신학대학이지만 대학에서 가르칠 때 교수와 학생 사이에 가장 민감해 질 때가 성적확인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보고서와 시험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교수가 정당한 점수를 주었는가의 문제는 아마도 대학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끔 보도를 통해서 어떤 교수가 자신의 자녀에게 한 것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좋은 점수를 주었다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일들이 불거져서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분노는 그만큼 사람들이 ‘공정’의 문제에 목매달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이런 민감함은 사실 대학 졸업이후에 펼쳐질 직장과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의 전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 문제인 이신칭의 교리가 도대체 대학 공동체의 ‘공정’이나 사회의 특혜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에서는 ‘의’에 대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가를 다룹니다. 반면에 공정, 특혜, 정의는 바로 이 ‘의’의 관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에서 이해한 ‘의’를 길잡이 삼아서 우리 시대의 ‘정의’를 반성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관련성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의’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와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좀 더 넓혀 보자면 이신칭의 교리는 더 많은 대학의 지배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강의초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루터가 우리에게 전수해준 이신칭의 교리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끝-

개혁주의 교회건설, Mission Impossible?

_MZ세대가 세워야 할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이성호 교수_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문제제기: 이 주제의 중요성

“개혁주의 교회건설!” 청년 때 가슴을 뛰게 만들던 구호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표어는 구호에 그쳤다. 개혁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당연히 실제로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혁신학을 잘 가르치는 것과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도 아니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구호에 그친 이유 중의 하나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이라는 의미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와 건설이 잘 호응을 이루지 않다보니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 되고 말았다. 만약 “개혁주의 교회 개척”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구체성을 띠었을 것이다. 차라리 개혁주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개척은 노회 소관이기 때문에 “개혁교회 세우기”가 그나마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교회를 몇 년 안에 몇 개 세울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굳이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 같다. 또는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실현하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신화: 이상과 현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이유는 개혁주의 교회가 하나의 이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는 이들에게 개혁주의 교회는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일 뿐이다. 그들은 개혁주의 교회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자체가 완전히 비개혁주의적인 생각이다.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화들을 제거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해 왔던 교회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교회란 결코 완벽한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잡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교회는 아주 간단하다.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 신학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믿는다고 공포하면 명목상의 개혁주의 교회이고, 그것을 실제로 가르치면 최소한의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교회가 매우 연약하여 개혁주의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교회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개혁주의의 어떤 한두 요소를 가지고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라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면 개혁주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참된 신자라면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혁주의 교회를 분별해서 그 교회에 소속하여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수가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개혁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그냥 분위기 좋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거의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사실 청년들의 경우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사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생존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면(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은 없다. 하루아침에 사업이나 직장이 망할 수도 있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 말리는 경쟁생활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을 어디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설교를 잘 하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설교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비록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일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우리 자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워가야 한다. -끝-